

이산가족 상봉 광주 김해룡·최명순 할아버지

“형님 제삿날이라도 알아야지”

“꿈에 그리던 상봉… 60년 한풀이 설렌다”



“60년 한풀이 됐어. 꿈에도 그리던 작은 형은 돌아가셨지만 혈육인 조카를 만나 생전 모습이라도 더듬어 볼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 사는 김해룡(80) 할아버지는 작은 형의 아들(66)을 만난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며 상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20일 광산구 송정1동 주민센터에서 만난 김 할아버지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작은 형(94)이 고인이 됐다”는 대한적십자사의 통보를 받고 말문을 잊어 놓았다.

그는 작은 형의 모습이 담긴 빛바랜 흑백사진을 쓰다듬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김 할아버지는 “해방 직전인가 될 것이다. 우리 식구들은 광주에 있었

고, 큰 형과 작은 형이 평양에서 직공 생활을 했었지. 두 분 모두 돈벌려 갔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니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 부렀지. 6·25 직전에 작은 형이 광주에 땅에 간 것이 마지막이여. 열주 한 60년 가슴에 품고 살았어”라며 세월을 더듬었다.

김 할아버지는 꼭 조카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큰 형의 생사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큰 형 나이가 올해로 97살이니, 아마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래도 조카라도 지낼라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제사 날이라도 알아야 할 것 아니겠소”라고 말했다.

동구 계림동에 사는 최명순(85) 할아버지도 북에 있는 두 여동생과의 상봉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동생들의

“6억, 뇌물아닌 정치자금”

오현섭 전 여수시장 수뢰혐의 일부 부인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오 전 시장의 변호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시(市) 도시개발사업단장이던 김모씨를 도피하게 한 것과 조명업체 남모 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업체가 김씨에게 제공한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N건설 모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치자금”이라며 나머지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오 전 시장도 이와 같은 입장장을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수확기 농기계 사고 잇따라

을 전남서 22명 사망

수확철 농촌지역 노인들의 농기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7시10분께 고흥군 두원면 풍류리 풍류정류장 인근 수로에서 이 마을에 사는 송모(64)씨가 트랙터에 끌려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고흥 경찰은 송씨가 눈에 수확한 벼를 가지러 갔다는 유족들의 말로 미뤄 품은 농로를 지나다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윤모(67)씨의 곡물 창고 안에서 윤씨가 벼 건조기에 끌려 숨졌고, 같은 달 25일 나주에서는 추수하던 60대 노인이 끌려와 전복 사고로 중상을 입기도 했다.

전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려면 농기계 사용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는 등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달 말 현재 전남지역에서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22명, 부상자는 394명에 달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수확의 계절

20일 나주 산포면 들녘에서 한 농민이 끌려와 사망하고 있다. 최근 경운기나 트랙터, 탈곡기 등

농기계로 인한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나이가 79세, 70세로 적지 않은

나이에 여서 걱정이 되지 않는 바

도 아니다. 황해도 금천이 고향인 쇠 할아

버지는 죽은 줄 알았던 두 여동생을 만난다는 게 꿈만 같다.

쇠 할아버지는 1951년 1·4 후퇴 때

남쪽으로 내려왔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6·25 전쟁 이후

남북이 갈리셨고 고향 땅은 다시 밟을 수 없는 곳이 됐다.

쇠 할아버지는 “(두 여동생) 당시

얼굴은 기억나지. 지금은 어떻게 변

했을까 모르겠소. 10년 전부터 계

속 신청했는데, 인자 되었구만. 열매

나 기쁜지”. 얼른 가서 부모님 지사(제사)가 언제인지 확인해봐야겠소”라며 눈시울을 적셨다.

쇠 할아버지는 15년 전부터 부모의 생일에 맞춰 제사를 지내고 있다. 쇠 할아버지는 “혼자 남쪽에 와서 사는 디, 고생도 많이 했지.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말이여. 그라 다분께 가족들이 더 보고잡더라고”라며 “이제라도 동생들을 볼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소”라며 희미한 웃음을 지었다.

김 할아버지는 쇠 할아버지를 다음

달 2일 북쪽에 가서 그리운 가족들을 만날 예정이다. 한편, 남북 적십자사는 이날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2박3일간 금강산

에서 열리는 상봉 행사에 참가할 최종

대상자 각 100명의 명단을 교환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수갑이 기가막혀

저절로 풀리거나 열쇠로도 안풀려 119 출동

경찰들 제품 낚아 곤욕

수갑의 고장이 잦아 경찰이 체면을 구기는가 하면 피의자들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수갑을 채워놓으면 자동으로 풀리는 경우가 더러 있고, 열쇠로 잡금장치를 열어도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종종 119가 출동해 수갑을 해제하는 웃지 못할 일마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수갑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일부 경찰은 낡은 국산 수갑을 버리는 대신 사비를 들어 품질이 좋은 외국산 제품을 직접 구입해 쓰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 교통과 사무실에서 김모(41)씨에게 제작된 수갑이 풀리지 않아 119가 출동했다. 119는 김씨에게 채운 수갑이 한쪽만 풀리고 한쪽이 풀리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절단기를 이용해 수갑을 잘라냈다.

이와 함께 최근 북부경찰 형사과에서는 재물순괴 혐의의 피의자

에게 채운 수갑이 스스로 풀리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피의자가 양 손목에 채운 수갑 몇 차례 위 아래로 흔들자 자동으로 풀린 것이다.

현재 경찰에서 사용 중인 수갑은 A산업 제품이 대다수다. 이곳에서 생산된 수갑은 미국 제품보다 강도·경도·내식성이 낮다.

자주 사용할 경우 열쇠가 부러지거나 수갑을 조이는 틈이 날아 마모돼 풀리지 않는 결함이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사용기간 또는 교체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점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임용 당시 받은 수갑을 정년 퇴임할 때 후배에게 물려주고 가는 경우도 있다”면서 “일부 경찰관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아예 미국산 제품을 9만5000원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내용참 (8148)
김충우



운림동 아파트 화재

60대 부부 회상·질식

20일 오전 11시45분께 광주시 동구 운림동 L아파트 3층에 사는 김모(69)씨의 집 작은방에서 불이 나 아파트 내부면적 115㎡를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25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방에서 자고 있던 김씨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으며, 김씨의 아내 주모(69)씨도 연기에 질식해 인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신고율이 10% 미만, 기소율이 50% 미만으로 대다수의 성범죄자들이 상응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성범죄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에서 우범자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며 “현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성범죄자들의 소재를 하루빨리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광주 성범죄 우범자 20명

경찰, 소재파악도 못해

행정안전위 국정감사

광주 경찰이 관리 대상 성범죄 우범자 20명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경찰청이 관리해야 할 247명의 성범죄 우범자 중 20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유형별로는 아동 성범죄 1명, 청소년 성범죄 2명, 성인 대상 성범죄 17명이다.

성범죄자의 재벌률은 50% 이상으

로 올해 8월말 현재 광주 지역에서는 총 247명의 성범죄 우범자가 등록돼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신고율이 10% 미만, 기소율이 50% 미만으로 대다수의 성범죄자들이 상응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성범죄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에서 우범자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며 “현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성범죄자들의 소재를 하루빨리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용돈 궁하다고 가스통까지 훔쳐

싱나팔 ○…용돈이 궁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LPG 가스를 배달해준 가게의 빙가스통까지 몽땅 훔쳐 달아난 30대가 경찰서행.

○…2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가스배달원 김모(33)씨는 지난 7일 새벽 4시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이모(여·50)씨의 노래방 앞에 놓여있던 50kg 짜리 LPG가스통 5개(개당 9만 원 상당)를 자신의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는 것이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약 3주 전 이씨의 노래방에 LPG가스를 배달하러 갔다가 우연히 빙가스통들이 방치돼 있는 것을 발견한 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노려 훔쳤는데, 경찰에서 “가스통을 팔아서 용돈으로 쓰려고 했다”고 진술.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수확기 농기계 사고 잇따라

을 전남서 22명 사망

수확철 농촌지역 노인들의 농기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7시10분께 고흥군 두원면 풍류리 풍류정류장 인근 수로에서 이 마을에 사는 송모(64)씨가 트랙터에 끌려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고흥 경찰은 송씨가 눈에 수확한 벼를 가지러 갔다는 유족들의 말로 미뤄 품은 농로를 지나다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해남군 북평면



수확의 계절

20일 나주 산포면 들녘에서 한 농민이 끌려와 사망하고 있다. 최근 경운기나 트랙터, 탈곡기 등

농기계로 인한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소송은 교과부가 선임한 이사 9

명 중 옛 경영진이 추천한 2명을 제외한 7명의 선임 절차가 무효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이다.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 이사진의 역할 등에 힘이 실리게 됐으며, 옛 경영진의 주장과 활동 등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